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3년도 표어 ⊕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마 25 : 40, 레 19 : 18)

⊕ 행동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 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 에스더서 강해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

(에 9:1-19)

아하수어로 왕이 두 번째 조서를 반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만의 남
은 무리들은 왕의 첫 번째 조서만 효력이 있다고 하며 유다 백성들을 진
멸하려고 합니다.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칠만 오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16절)

첫 번째 조서는 폐기되었는데도 그냥 죽을 수 없었던 악의 무리들이
자신들의 정당함을 주장하며 전열을 갖춰 전쟁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세는 유다 백성들 쪽으로 기운 다음이었습니다. 결과는 유다 백
성들의 승리였습니다. 이것은 그냥 얻은 승리가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
이 자신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며 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싸워서
이뤄낸 아름다운 승리였습니다.

에스더 9장의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적 삶의 모습을 상징적으
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
고, 거룩한 성도가 되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
라를 상속받을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싸움,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다는 의
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갈 5:17).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우리에게
'육체의 욕심'이라는 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성령님께서 새로운 삶의 방
향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만의 무리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
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들은 모르드개를 두려워했
고, 유다 백성들을 두려워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
산에 사는 유대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
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13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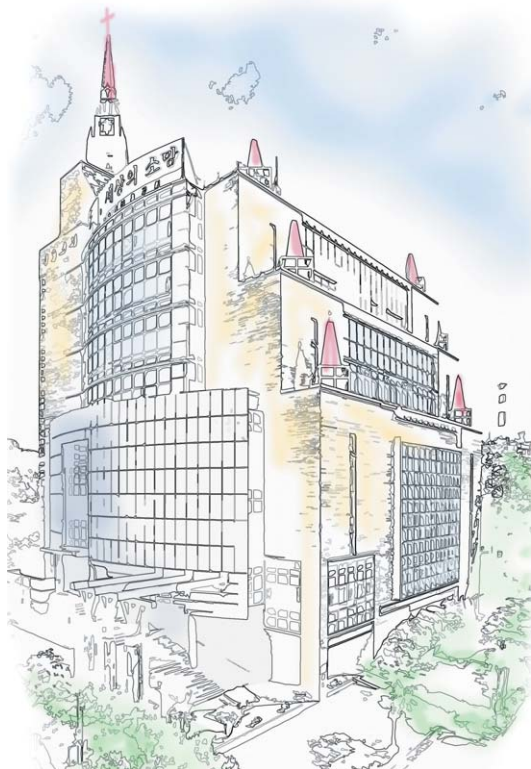
전쟁이 끝난 후 에스더가 왕에게 이같이 청합니
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
셨을 때 악을 제거하는 일에는 잔재를 남기지 않아
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에 우리는 나쁜 버릇, 나쁜 습관, 죄의 생각
과 행동들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는
인일한 생각이 나중에는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우리들은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악한 원수는 완전히 진멸하므로
온전한 승리를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Annihilate Without Exception

(Esth. 9:1-19)

Although King Xerxes proclaimed the second official edict, Haman's
people asserted that the first official edict was valid and tried to annihilate
the Jews.

“Meanwhile, the remainder of the Jews who were in the king's
provinces also assembled to protect themselves and get relief from their
enemies. They killed seventy five thousand of them but did not lay their
hands on the plunder” (v. 16).

Though the first official edict was fallen into disuse, the evil group got
ready to line up for battle, and tried to wage war. However, their plan was
made after the general situation was determined by the Jewish people.
Accordingly, the Jewish people had the victory. It was not easy for the
Jews to have the victory. It was really a wonderful victory in which the
Jews asserted their lawful right, fought actively with one accord, and came
through.

The content of Esther, Chapter 9 is the incident
that symbolically showed us the trace of Christians'
inner life. The fact that because they believed Jesus
Christ, they became God's people, and eternally
became the God's children who inherit God's
nation.

The Apostle Paul said, in the following:

“For the sinful nature desires what is contrary to
the Spirit, and the Spirit what is the contrary to the
sinful nature. They are in conflict with each other, so
that you do not do what you want” (Gal. 5:17).

There is an only a law of “the sinful nature desire”
for us before we personally meet Jesus. However,
after we believe in Jesus, the Spirit presents us a new
direction in life.

God inculcated a fear in the mind of Haman's
group. They were afraid of Mordecai, the Jewish
people, and above all things God.

“If it pleases the king, Esther answered, “Give the
Jews in Susan permission to carry out this day's edict
tomorrow also, and let Haman's ten sons be hanged
on the gallows” (v. 13).

After the war, Esther pleaded with the King like
this, “What does it mean? When God gives us a
chance, there must be no remnant evil in our work.”

My beloved Christians!

When God gives us a chance, we must completely get rid of sinful
thoughts, and actions. An easy idea, “This is okay” will be potential drags
on us. We are the soldiers of cross. By completely annihilate the evil
enemy in our life,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enjoy the absolute victor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오늘 찬양예배 후 장로, 안수집사, 권사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개최

-찬양예배 전까지 2층 로비에서 투표용지 교환권 수령하도록-

오늘 찬양예배 후 본당(2,3층)에서 제12대 장로 10명, 제13대 안수집사 40명, 제12대 권사 80명을 선출하기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한다.

본 교회 정식교인자격을 취득한 만18세 이상(공동의회일 기준)의 세례교인(입교, 개종 포함)이면 모두 공동의회에 참가하여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장로는 전체투표자의 2/3, 안수집사와 권사는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경우에 피택되며, 장로의 경우 1

차 투표에서 피택된 인원이 선출예정인원의 1/2인 5인 미만일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1,2,3부 각 예배 후에 2층 로비에서 각 교구목사 담당 교구별로 투표자격 확인과 함께 투표용지 교환권을 배부하니 위 자격에 해당하는 성도들은 모두 이를 수령하기 바란다.

투표자격 확인과 교환권 배부는 찬양예배 직전까지 이루어지며 대리확인 및 대리수령은 할 수 없다.

2013 터키 성지 순례

9월 24일(화)~ 10월3일(목) / 박노철 담임 목사의 특강도



우리 교회는 9월 24일(화)부터 10월 3일(목)까지 9박 10일 동안 터키 성지순례를 간다. 소아시아 7교회와 사도 바울의 세계전도여행지를 중심으로 밧모섬까지 순례를 하게 된다. 성지를 순례하며 큰 은혜를 받는 것은 물론 성도들의 깊은 교제를 통한 쉼과 회복의 시간이 될 것이다.

특별히 박노철 담임목사가 직접 인도하는 4번에 걸친 특강을 통해 더욱 알찬 성지순례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 비용은 290만 원으로 국제 항공권과 터키 국내 항공권, 크루즈 및 최상의 호텔과 식사 등 일체 경비를 포함한 액수이다. 1차 마감은 40명으로 5월 20일(월)까지이며, 신청자들은 21일(화) 오전까지 등록비 20만 원을 내야한다. 40명이 넘을 경우 2차 마감은 26일(주)까지 연장한다. 21일(화)에 마감되는 등록비는 직접 사무국에 내거나 아래의 교회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하나은행 215-196427-02404)

제13회 경기도 장애인 IT Festival 참가 호산나대학생들 - 최우수상 수상



지난 4월 30일(화) KT 수도권 강남고객본부와 경기도 장애인재활협회가 공동주최한 제 13회 경기도 장애인 IT Festival에 호산나 대학을 대표하여 김종열(교양학부), 장병훈(사무자동2), 지윤준(사무자동2), 권한준(사무자동3), 정성우(사무자동3), 김범준(서비스3), 최호용(서비스3) 이상 7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정성우 학생이 데스크탑 정보검색부문 일반부 최우수상을, 권한준 학생이 MS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장애를 뛰어넘어 IT를 통한 축제의 장”을 모토로 장애인과 가족, 인솔자, 자원봉사자 등 약 300명이 참여해 열린 이번 대회는 데스크탑 정보검색대회, 태블릿PC(플릭시탭) 활용대회, MS경진대회, 카트라이더

등 총 6개 부문에서 열띤 경합이 펼쳐졌으며, IT로 장애·비장애인들이 하나되어 서로 소통하고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지역사회 축제의 장이 되었다.

대회에 참가한 7명의 학생들은 3월 교내 정보검색 평가전을 통해 대표로 선발되었으며 약 2개월가량 점심시간과 방과 후 시간에 열심히 준비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함께 참가한 최호용학생(8대 총학생회장)은 “수상하지 못해 아쉽지만 우리학교에 사무자동화학과가 있어 너무 자랑스럽다. 대회를 통해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참가한 학생뿐만 아니라 참가하지 않은 학생들까지도 노력하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의 의지를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88]

(문 87) 누가 골리앗을 죽였습니까? 다윗입니까, 엘 하난입니까?

(답) 삼상17:50에 의하면 다윗이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베었다고 했습니다. 막대기 하나와 매끄러운 돌 다섯을 갖고 그를 넘어뜨리고 그를 쳐 죽였으나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십대의 어린 소년이 단번에 이스라엘의 개신장군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삼하21:19의 기록은 히브리 마조라 텍스트(Masoretic text)로 읽게 되면 "베들레헬 사람 아르 오르김의 아들 엘 하난은 가드사람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의 창 자루는 베를 채 같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삼상17장과 아주 다르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대상20:5말씀이 이를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 하난이 가드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 자루는 베를 채 같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기 필경사들은 원본이 찢어졌거나 얼룩져서 잘못 베긴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따라서 흠정역(KJV)에서는 삼하21:9말씀에 '~의 아우 라흐미'를 대상20:5에 의해 삽입했고 우리 성경 개역개정판에서도 "엘 하난이 가드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고 의역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엘 하난이 죽인 골리앗은 다윗이 죽인 골리앗과 동명이인 일 것이라 해석하는 이도 있으나 상황으로 보아 받기 어려운 해석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이는 엘 하난과 다윗은 동일인 일 것이라 보는 이들도 있으나 근거가 없는 추측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창 자루가 베를 채 같았다.'(대상 20:5, 삼하21:19)는 말로 보아 골리앗의 형제들은 대단한 용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삼하21장은 본래 원본을 더듬어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전화된 어형으로 다행히 역대상 20:5에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즉 골리앗은 다윗에 의해 죽었고 엘 하난은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인 것이 분명합니다.

(다음주 계속)

교회 지하주차장 공사

우리 교회 지하주차장의 노후로 인한 바닥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금주 중에 각 요일별로 사용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을 순례자에 게재한다.

불편하더라도 성도 여러분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교회에 오기를 바란다.

- 20일(월): 지하1,2,3층 폐쇄, 교회 앞마당 주차가능
- 21일(화): 지하1,2,3층 폐쇄, 교회 앞마당 주차가능
- 22일(수): 지하 1층, 3층, 교회 앞마당 주차가능
- 23일(목): 지하1,2,3층 폐쇄, 교회 앞마당 주차가능
- 24일(금): 지하1,2,3층 폐쇄, 교회 앞마당 주차가능

성령강림주일

the season of Pentecost

오늘은 오순절, 성령강림주일입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의 첫 곡식을 감사하는 절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 곡식을 감사하는 이 절기는 유월절 이후 50번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날은 흔히 '맥추절' (출 23:6)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에 밀과 보리의 첫 추수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은 또한 '칠칠절' (출 34:22)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초실절에서 7주가 지난 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순절은 첫 곡식을 추수하는 감사의 예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신을 위하여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뻐하며 감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의 영혼과 정신을 새롭게 출발시켜 주시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던 감사의 절기가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교회의 첫 열매를 맺게 되는 날이 된 것입니다.

또한 오순절은 강한 바람과 함께 불의 혀 같은 것이 제자들에게 임하여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던 때(행 2:1-41)를 기념하는 절기로 승화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의 회중들에게 유대의 전 역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이 성취된 것까지를 일목요연하게 선포하는 능력 있는 설교를 하였을 때 3천 명의 회심자를 얻는 역사적인 선교의 장이 열리는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오순절 성령강림주일은 교회 가메시아의 완성된 시간의 상징으로 지키는 날이 되었습니다.

한국장로신문 순례자칼럼

변화는 좋으나 변질은 안된다

지난 4월 27일(토) 한국장로신문 순례자 칼럼(77)에 기고한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복음화된 통일조국이다.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시어 이방의 빛을 삼으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대한민국을 선택하시어 온 세상에 복음 선교의 교두보로 삼으신 것이다. 그 약속의 땅에 살아갈 미래의 시민상은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이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원불변하신 진리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새 예루살렘성을 향한 진군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이다. 미래 세계에 대한 비전과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말씀만, 오직 믿음만, 오직 은혜만의 행동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많은 피해를 가져온 것이 된다. 오늘 우리 사회에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바꿀 수 없다는 보수와 변해야 산다는 진보가 팽팽하게 정치 문화 교육 종교 등 각 층마다 대립각을 세우고 충돌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두 개념은 충돌해 넘보다는 상호 보충개념이다.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는 다함께 헌법을 보수해야 한다. 그 헌법의 표준 하에 변화를 요청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신앙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위는 보수해야 한다. 성경의 교훈아래 예배도 교육도 전도도 봉사도 해야 한다. 문제는 입으로는 헌법을 인정하나 실은 반헌법적 행동을 하며 자유와 정의와 평등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반국가적 행동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강단에서 읽고 성경이야기는 설교라는 틀 속에서 외치고 있으나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을 기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보다는 교인수 증가를 목표로 교세 확장에 더 치중을 했다면 그것은 변화가 아니라 변질된 교회라 할 것이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는 어제 오늘의 이사가 아니다. 세계적 추세와 젊음을 위함이라는 명분만으로 변질된 교회를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비성경적 반기독교적이다.

이제야말로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성경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직선만 굽고 살 수 있는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울기도 웃기도 하는 세상에서

곡선을 그릴 수 밖에 없지만 그래도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곡선의 방향만은 계속 하나의 뜻대인 성경만을 향해 전진하고 상승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시작이 있듯이 끝이 있을 것이라는 성경적 사관과 지금은 그 끝에 매우 가깝게 이르렀기 때문에 더욱 그 나라의 왕되신 주님의 뜻과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항상 끝을 생각하고 그 종말로부터 현재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졌다. 그날에 주님 앞에 서서, 받은 면류관을 벗어 이것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주님 발 앞에 내려 놓을 면류관을 준비하면서 살기로 작정한 것이다. 어차피 지나가 버릴 인생게임에서 끝을 보고 사는 사람은 그 끝 바로 뒤에 오는 영원한 나라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방향과 목표가 정확히 정해진 삶이란 가는 길이 혹 평탄치 못하고 때로는 구부러진 길로 들어서기도 하지만 인내와 절제와 소망을 갖고 자기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눈에 들 수 있는 바른 주의 청지기로 변화시켜 달리게 함으로 승리자가 되도록 하자.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주님,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도록 성경대로 변화시켜 주시고 변질된 교회는 고쳐주소서.

주님,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도록
성경대로
변화시켜 주시고
변질된 교회는
고쳐주소서

각각하고 그 종말로부터 현재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졌다. 그날에 주님 앞에 서서, 받은 면류관을 벗어 이것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주님 발 앞에 내려 놓을 면류관을 준비하면서 살기로 작정한 것이다. 어차피 지나가 버릴 인생게임에서 끝을 보고 사는 사람은 그 끝 바로 뒤에 오는 영원한 나라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방향과 목표가 정확히 정해진 삶이란 가는 길이 혹 평탄치 못하고

때로는 구부러진 길로 들어서기도 하지만 인내와 절제와 소망을 갖고 자기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눈에 들 수 있는 바른 주의 청지기로 변화시켜 달리게 함으로 승리자가 되도록 하자.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주님,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도록 성경대로 변화시켜 주시고 변질된 교회는 고쳐주소서.

이종윤 목사

<한국기독교학술원장 · 서울장신대 석좌교수 · 서울교회 원로>

나의 하나님

초보 아내의 감사

손예원 성도
(13교구)



오빠, 이제 우리가 부부가 된지 보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한 집에 산 것은 채 일주일도 안되었구요.

아직은 밥하는 것도 어설피고, 청소하는 것도, 못질 하는 것도 어설피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살림을 하는 건지 소꿉놀이를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찌개를 끓인다고 온갖 재료와 양념통을 싱크대 위에 잔뜩 쌓아놓고... 정말이지 제가 봐도 초보티가 너무 나서 웃음이 절로 납니다.

아직은 어리벙벙하고, 정신없고, 바쁘지만 그런 중에도 오빠를 만나게 해주시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오래 전부터 기도하며 기다렸던 좋은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해 주시는 또



다른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요.

남편과 아내라는 호칭이, 사위와 며느리라는 호칭이 아직은 어색하고 마음에 크게 와닿진 않지만 우리 서로에게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운 남편과 아내가 되고, 부모님께서는 든든한 자녀들이 되도록 노력해요.

때로는 서로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극복해 나가기로 해요.

그래서 단단하고 건강한, 또 행복한 복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빠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빠를 낳아주신 부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소요리문답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권신영 집사
(소요리문답부 교사)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라는 찬양이 저절로 나올 만큼 화창한 4월 마지막 토요일에 소요리 문답부 교사 11명은 정수길 목사님의 인도로 경기도 광주의 광림수도원에서 교사일일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광림수도원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의 이적들에서부터 십자가 처형 및 부활의 사건까지 11개의 과정을 조각상(Icon)을 통해 알기 쉽게 표현해 놓은 곳 이었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공생애와 부활까지의 과정을 다시 한번 체험하며 묵상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님의 간략하면서도 깊이 있는 말씀과 함께 각 처소에서 진행된 뜨거운 기도회를 통해, 바쁜 일상에 묻혀서 잠시 잊고 있었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새롭게 깨달으며 소요리문답부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다시금 되새겨 보았습니다.

인생은 苦海(고해)라고 하였는데, 내 인생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풍랑을 잠재우시는 분은 오로지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드린 여인처럼 나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못 반성해



보았습니다. 반복되는 절기행사처럼 여겨졌던 성찬식에 아무런 마음의 준비 없이 참여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찬의 의미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셔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증인이 되어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명령에 따라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증인된 삶을 살고자 다짐하였습니다. 점심식사와 티타임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좀 더 가까이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학생들을 위해 더욱 헌신하며 기도하는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며 더욱이 큰 기쁨을 안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열정적인 목사님, 겸손하고 헌신적인 부장님, 신실한 동료교사님들과 함께 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경통독시상 - 찬양예배시간에

- 필사1회 송행희집사(3교구)
- 3독 김성은권사(6교구), 2독 이영자1권사(11교구)
- 1독 서경애권사(1교구), 이남복권사(5교구), 전용순권사(9교구), 정윤재(고등부), 주동재집사(13교구)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20일(월) 한국기독교교육학회 43회학술공개세미나를 개최한다. 21일(화) Save N.K. 통일을 대비한 전문가 원탁회의에 참여한다. 22일(수) 한남CBMC 1000회 기념감사조찬기도회에서 설교한다. 23일(목) 장로교육원 강의 및 종강예배 설교를 한다.
- 박사학위 취득 : 3교구 한창호 성도(한인진 집사 박정순 권사 장남) 미국 퍼듀대학교 약학박사
- 개업 : 10교구 예완신 집사 '가나안 물류' - 슈퍼·마트 납품전문점 5월1일
- 주간식당봉사 : 안드레선교회(5.19) 베드로선교회(5.26)
- 금주의 식사 : 박태규 집사 송희숙 집사 가정, 송상준 집사 김수연 집사 가정 (정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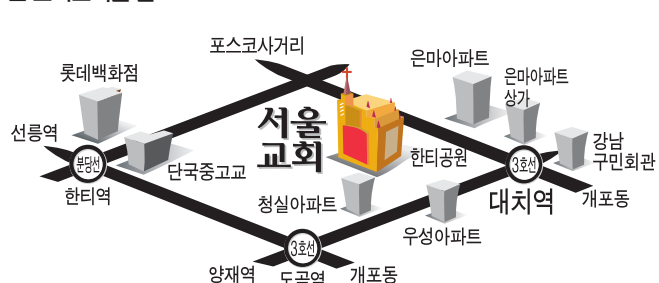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2013년 항존직으로 선출된 일꾼들이 우리 주님의 몸 된 서울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충성된 종들로 쓰임 받도록
- 올 9월에 있는 터키 성지순례에 많은 성도들의 참여와 기도로 은혜와 기쁨과 치유가 충만할 수 있도록
- 성령강림주일을 맞아 우리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충만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I부 예배	오전 9시
	II부 예배	오전 11시 20분
	III부 예배	오후 2시
	찬양예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요일예배	I부 예배	오전 11시
	II부 예배	오후 7시
새벽예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당 II층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